

장흥 회진간척지 다시 갯벌 된다

2008년부터 200억 들여 4km 물길 뚫어
국내 첫 복원...환경보전·관광새 모델로

국내 최초로 바다 매립지를 뚫어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 장흥 회진면 일대에서 추진된다.

장흥군은 4일 회진항~신상리 바다매립지 통수시설사업이 해양수산부 제 1차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12억6천만원의 실시 설계비가 확보됐으며, 기본 계획이 확정된 2008년부터 200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연차 사업으로 바다 매립지를 뚫게 된다.

장흥군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갯벌복원사

업은 회진항~신상리에 길이 4km 폭 200m의 바닷물 길을 파고 배수갑문 교량 3개를 조성해 오염된 해양환경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바닷물이 드나들게 할 경우 3년 이내에 회진항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10년 이내에 갯벌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고있다.

장흥군은 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낚시터 등을 설치해 관광과 환경보전을 접목시켜 해양환경 복원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965년 방조제를 막아 조성된 회진항~신상리간 간척지는 규모가 약 200ha에 달하며 인근 주민들의 농경지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회진항 일대의 조류소통이 원활하

지 못한다 갯벌이 퇴적돼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항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청정 특산물 보존을 위해서도 갯벌 복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회진항 일대 매립지 복원사업을 추진, 최근 새만금 방조제 공사재개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면서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최연수 장흥군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정부 정책대체기 기존의 개발에서 보존으로 바뀌면서 이같은 사업 승인이 가능했다"며 "통수시설이 완공된 뒤 연차적으로 갯벌이 복원되면서 환경보전의 대국민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社 告



9월9일은 '광산업의 날'

유공업체 표창...인기가수 공연 등 한마당도

광주의 차세대 주력산업인 광(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광산업의 날'이 올해로 2회째를 맞습니다.

광주일보사와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정부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광산업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해 '2006 광산업의 날' 행사를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광주시 첨단공원과 쌍암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합니다.

광산업 관련 산학연관 임직원과 가족, 시민 등 1천여명이 참가할 이번 '광산업의 날' 1부 행사에서는 광산업체와 유관기관·단체의 체육대회, 장기자랑이 펼쳐지고 2부에서는 광산업 발전유공업체에 대한 표창,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 축제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21세기 광주시 전략산업인 광산업 발전과 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광산업의 날' 행사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 일시: 9월 9일(토) 오전 10시~오후 11시
- 장소: 광주 첨단공원 및 쌍암공원 야외음악당

- 주최: 光州日報社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
- 후원: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기관·단체

“남양·금호 백의종군 하라”

광주경실련 '광주상의 정상화' 해법 제시

제 19대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와 관련, 책임있는 당사자인 금호측과 남양측은 제 20대 광주상공회의소 집행부와 상공의원 구성에서 물러나 평화원으로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광주YMCA에서 광주시민단체 협의회가 마련한 시민대토론회에 참가한 김재서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자유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 처장은 “금호측은 먼저 법원에 계류된 19대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을 취하, 19대 집행부와 상공의원들의 명예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이어 의

원총회에서 정관계정절차를 밟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개혁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김 처장은 또 “이같은 시나리오는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재선거 후 19대 집행부와 의원들은 깨끗이 물러나 차기 구성원들의 광주시의 정상화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인서 조선대 초빙교수는 “광주시의 과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19대 광주시의 선거가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당사자들과 지역기업인들이 모두 나서 광주시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인성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광주시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발제문에서 광주시의 ▲경제발전 비전제시 ▲중소기업 경영상담 및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인재육성사업 추진 ▲기업의 해외연계 및 진출지원사업 ▲취업기회 확대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대기자 jilee@kwangju.co.kr



‘광통신 컨퍼런스’ 개막

아시아 최고 권위와 규모를 자랑하는 ‘아시아-태평양 광통신 컨퍼런스’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7일까지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는 27개국의 광산업 전문가들이 연구한 662건의 광통신분야 신기술이 발표된다. /이태대기자 mjna@kwangju.co.kr

고교 획일적 보충학습 못한다

강제 야간자율학습도 금지...유명강사 특강 허용

고교의 획일적인 보충학습과 야간 자율학습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 강화를 학급 전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고교의 ‘획일적 보충학습’을 못하도록 시·도교

육성의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또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수준별 강화를 운영하되 학생의 강의·강사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학생의 희망과 수준에 맞는 무학년 수준별 수업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수의 성적 우수학생만을 위한 심화반 운영이나 학생들이 원치 않는 과목까지 포함한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등은 금지된다. /황태중기자 hwangtae@

中, 2018년 동계올림픽 백두산 개최 추진

백두산(중국어명·長白山)의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 지질공원 신청을 추진중인 중국이 오는 2018년 개최되는 제25회 동계 올림픽을 백두산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린(吉林)성 직속 창바이(長白山) 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 스귀상(石國祥) 주임은 지난 3일 창춘(長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백두산에 ‘양텐어(望天鵝)국제스키장’을 만들어 이곳에서 2018년 동계 올

림픽이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 주임은 앞으로 백두산에 50억~120억 위안을 투자, 5개 테마구역과 3개 서비스구역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왕텐어스키장에 대한 투자는 5~15년의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관리위원회측이 현재 국내의 재벌 및 대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도시에서 **약200M**, 3가지 **프리미엄**을 모두 누리세요!
신도시 한양아파트 '수자인'

한양아파트 '수자인' 3대 특권!

- 1. **교육 특권** | 신도시 4대 특권 중 가장 먼저 실현되는 교육 특권
- 2. **생활 특권** | 신도시 4대 특권 중 가장 먼저 실현되는 생활 특권
- 3. **공급 특권** | 신도시 4대 특권 중 가장 먼저 실현되는 공급 특권

한양아파트 '수자인'은 이렇게 다르다!

- ▶ 특급한 프리미엄 아파트
- ▶ 수려한 외관 디자인
- ▶ 2000평대 대단지 아파트 단지
- ▶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
- ▶ 최강의 보안 시스템
- ▶ 3대 특권 모두 갖는다

수자인 전용편의 POP TV, 수영장, 디지털가게 등

☎ 961-8114

(주)한양